

**새로운.
음악예술.
다름슈타트.**

25-26

이중 초상 //

헤레노 사냐 95

& 코르드 마예링 70

수십 년 동안 다름슈타트의 문화적 삶을 깊이 있게 형성해 온 두 인물을 기리는 특별한 저녁입니다. 올해 뜻 깊은 생일을 맞은 두 분, 다름슈타트에 거주하는 스페인 출신 철학자 헤레노 사냐와 작곡가이자 오랫동안 다름슈타트 음악원 원장으로 활동한 코르드 마예링을 소개합니다.

프로그램

코르드 마예링

〈이흐네우타이 – 추적자들〉 중에서
2대의 기타를 위한 4개의 악상 스케치
소포클레스의 사튀로스극 단편에 기초함 (1987)

2. 헤르메스
3. 실레노스와 사튀로스

로렌초 미켈리, 기타 (틸만 흠스톡 교수반)
다니엘 돈지비치, 기타 (틸만 흠스톡 교수반)

일러스트레이션: 올리케 로트

인사말

아르네 기쇼프

코르드 마예링

잡
클라리넷(Bb), 두 대의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낭독 음성 및 타악기 (2017)
독일 초연

세실리아 서*, 낭독
징위안 가오*, 낭독
승동 김*, 낭독
사라 린드너, 클라리넷 (미하엘 슈미트 교수반)
콘스탄틴 슈파트, 퍼커션 (엔스 크노프·슈테판 루프 교수반)
하오텐 가오, 제1바이올린 (뤼디거 로터 교수반)
서헤인, 제2바이올린 (알리나 아르모나스·탐브레아 교수반)
프라우케 마가레테 톰젠·오터, 비올라 (클라우스 오피츠 교수반)
쉬오 구오, 첼로 (정일륜 교수, 작곡과)

*객원: 현재 슈투트가르트 음악·공연예술대학교에서 서예리 교수의 지도로 현대음악(Neue Musik) 성악을 주전공으로 수학 중인 아카데미 뤼어 톤쿤스트 동문.

대담

코르드 마예링 & 아르네 기쇼프

코르드 마예링

〈사냐의 낭송들 (DECLAMACIONES DE SAÑA)〉
소프라노, 바리톤, 피아노를 위한 곡 (2020/23/24)

시: 헤레노 사냐

서예리, 소프라노
데이비트 피힐마이어, 바리톤
홀거 그로쇼프, 피아노

세계 초연

프로그램 노트

〈이흐네우타이 – 추적자들〉 중에서

2대의 기타를 위한 4개의 악상 스케치
소포클레스의 사튀로스극 단편에 기초함 (1984)

2. 헤르메스
3. 실레노스와 사튀로스

연주 시간 약 7분

〈이흐네우타이〉(추적자들 / 흔적을 읽는 이들)은 코르드 마예링(작곡), 페터 슈테펜스(텍스트), 울리케 로트(일러스트레이션)가 함께한 공동 프로젝트입니다.

페터 슈테펜스는 소포클레스의 사튀로스극 〈이흐네우타이〉를 〈Suchen〉으로 변형했으며(부제: 〈소포클레스의 사튀로스극 〈이흐네우타이〉의 변형〉), 울리케 로트는 이에 맞추어 일러스트레이션을 제작했습니다. 총보, 텍스트, 그림은 하나의 통합된 판본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소포클레스의 사튀로스극 〈이흐네우타이〉(Die Spürhunde / Spurenleser)는 음악의 신적 기원을 유머와 시적 경쾌함으로 들려줍니다. 텍스트의 약 절반은 이집트에서 발견된 파피루스에 전하며, 무대는 아르카디아의 킬레네 산, 신 헤르메스의 탄생 직후입니다. 아폴론은 분노합니다. 그의 신성한 소 떼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실레노스와 소란스러운 사튀로스 합창단에게 도둑의 흔적을 찾으라고 명합니다. ‘추적자들’은 먼지 속에서 기이한 표식을 발견합니다. 거꾸로 찍힌 발굽 자국, 그리고 그들을 당혹스럽고 동시에 호기심에 사로잡히게 하는 작은 아이의 발자국입니다. 수색을 이어가던 그들의 귀에 낯선 울림이 스며

듭니다. 세상에 아직 없던, 공중에 뜬 듯한 소리입니다. 갓난 헤르메스가 막 발명한 리라의 목소리로, 그는 거북 껍데기에 줄을 매어 악기를 만들었습니다.

경외와 두려움이 뒤섞인 마음으로 사튀로스들이 신적 아이에게 다가가자, 아이는 아이다운 영리함으로 자신의 장난을 부인합니다. 마침내 아폴론이 직접 나타납니다. 질서의 빛나는 신과 발명의 영리한 아이가 마주하는 순간, 음악의 이중적 본성이 드러납니다. 음악은 신이 내린 선물이자 동시에 창조적 속임수입니다. 전해지는 시구들에 비추어 보면, 끝에는 화해가 도래합니다. 헤르메스가 아폴론에게 새 발명을 건네고, 그 악기는 정신과 소리의 조화를 상징하는 표지가 됩니다.

〈이흐네우타이〉는 고대에 전하는 드문 사튀로스극 가운데 하나입니다. 소포클레스가 희극성과 성스러움을 결합하여, 호기심과 기만으로부터 음악이 태어나는 순간을 어떻게 축복했는지를 보여 줍니다.

안내: 다음 QR 코드를 스캔하시면 웹사이트로 연결되며, 그곳에서 소포클레스의 사튀로스극, 페터 슈테펜스의 변형작품 〈Suchen〉, 그리고 올리케 로트의 일러스트레이션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잠

클라리넷(Bb), 두 대의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낭독 음성 및 타악기
(2017)
독일 초연

연주 시간 약 8분 30초

작품 〈잠〉은 한국의 장단인 굿거리를 바탕으로 합니다. 굿거리는 전통 한국 음악의 중심 장단 가운데 하나로, 이 곡은 여덟 개의 리듬적 구간이 호흡의 움직임처럼 서로를 따라 이어지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굿거리’라는 명칭은 무속 의례인 ‘굿’에서 유래합니다. 굿에서 음악·춤·노래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잇는 매개가 되며, 굿거리는 ‘신이 나타나는 순간’을 이끄는 장단로 여겨집니다. 그 리듬은 부유하는 듯한 에너지를 지니면서도 고요하고 주문처럼 마음을 모읍니다. 하나의 원을 열어 움직임과 정지가 분리되지 않는 자리, 지상의 맥박과 영적인 호흡이 균형을 이루는 지점을 드러냅니다.

〈잠〉에서 이 장단은 민속적 차용으로서가 아니라 정신적 동력으로 제시됩니다. 호흡과 의식의 장(場)으로 작동하여, 각성과 꿈 사이의 경계가 소리로 감지되게 합니다.

제2·제4·제6·제7 구간에서 들리는 낭독은 작품의 시적 중심을 이룹니다. 이 공연에서는 별도의 낭독자들이 이를 맡아 낭송하며, 코르드 마예링의 시에 근거하고 이건용의 번역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잠 – Schlaf〉은 서양과 한국의 음향 세계를 하나의 움직임으로 엮어, 무속적 세계관에서처럼 신이 나타나는 순간을 음악적 원 안에 불러옵니다. 고요히, 숨 쉬듯, 지금·여기에서.

SCHLAF

Nichts bewegt das Herz
Nichts berührt den Atem
Es gibt kein Sehnen, kein Verzweifeln

Der Mond bescheint den Schmerz,
Teilnahmslos...
Nur das Wasser spricht zu mir
Von Dir

Es reinigt unsere Herzen
Es trägt die Blüten unserer Liebe
In sanftem Tanz hinfert

Lass mich endlos schlafend weiter atmen
Traumlos
Bleich
Im toten Widerschein des Mondes

Cord Meijering

잠

마음을 흔드는 것도
숨길을 훔치는 것도 없네
욕망도 절망도 아무 것도

달이 상처를 비추네
무심히
넋물만이 지줄대네
“너, 너, 너는, 너를....”

마음을 지우고
우리들 사랑의 꽃을 가져오네
부드러운 춤에 실어서

끝없이 긴 잠에서 숨 쉬게 해 다오
꿈도 없이
창백한
달의 죽은 일렁임 속에서

번역: 이건용

〈사냐의 낭송들〉 (Declamaciones de Saña)

소프라노, 바리톤, 피아노를 위한 곡 (2020/23/24)

사랑하는 친구 박정선과 조준현의 결혼과 아들 이담의 탄생을 기리며 헌정합니다.

시: 헤레노 사냐

시집 〈Una guerra sostengo〉(〈나는 전쟁을 이어간다〉)에서

연주 시간 약 45분

서예리, 소프라노

데이비트 피힐마이어, 바리톤

홀거 그로쇼프, 피아노

〈사냐의 낭송들(DECLAMACIONES DE SAÑA)〉은 스페인의 철학자이자 시인 헤레노 사냐의 소네트와, 열정과 구성, 걱정과 고요 사이를 부유하는 음악을 결합한다. 열두 편의 시—인간의 존엄, 성실, 저항력을 고백하는 각기 다른 선언—는 전통적 의미의 ‘노래’가 아니라, 목소리·언어·구조가 역설적으로 만나는 낭송적 음향 공간이다.

코르도 마예링은 오래전 다름슈타트 이레넵가에서 이웃으로 지내며 헤레노 사냐를 알게 되었다. 우연히 이탈리아 식당 ‘돈 카밀로’의 바에서 시작된 인연은, 사냐의 작업실에서 이어진 긴 저녁 대화로 무르익었다. 신문 더미와 담배 향, 오래된 타자기 사이에서 그들은 ‘카를로스 프리메로’를 마시며 스페인 시, 그 안에 깃든 풍경들의 상상, 그리고 정치—코소보 전쟁 시기의 유럽이 드러낸 도덕적 일그러짐—에 대해 이야기했다. 해 질 녘이면 아내 지젤라가 얼굴을 비치며 미소 지었다. “거기 또 시인과 사상가들이 모였네.” 그녀가 문을 닫고 나가면, 우정과 아이러니, 상호 존중의 공기가 대화를 다시 움직였다.

이 작품은 마예링이 ‘환상 음악’이라 부르는 연작에 속한다. 겉으로는 고전적 질서의 표면을 띠지만, 내면은 폴 발레리를 연상시키는 구성적 엄정에서 솟아난 사유로 짜였다—지적 명료함이 내부의 불꽃으로 이어지는 예술. 표면상의 조성감 뒤에는 12개의 배음열이 정교한 건축처럼 놓여 각기 고유한 ‘중력 중심’을 이룬다. 그 사이를 ‘전음계적(12음) 전간격열’의 변형들이 가로지르는데, 높은 불협에도 불구하고 불협과 ‘중력’의 맥동이 만들어내는 운동 때문에 오히려 평형과 정적의 인상이 생긴다. 작품의 에너지는 만화경처럼 거듭 굴절·반사되면서도, 언제나 같은 요소들로 재구성된다.

피아노는 오직 해당 배음열만을 연주하지만, 작곡적 설계는 다성 조직의 환상을 낳는다. 선율의 선형적 운동이 음향의 깊이로 전이되는 ‘의사다성’, 곧 의도된 미학적 착시다—들리는 것과 구성의 실상이 어긋나도록 만든, 지각과 현실의 놀이.

배음 관계에 대한 이해와 이 전음계적(12음) 화성 체계는 마예링이 다름슈타트 음악원에서 요하네스 프리치에게 배웠던 학생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씨앗은 20세기 1970년대에 놓여 있다.

한가운데에는 헤레노 사냐가 소네트 〈A Gisela〉에서 스스로 그려 보인 대립이 서 있다.

“너는 평화와 조화로 빛어진 이”라고 그는 아내에게 쓰고, 동시에 고백한다. “나의 큰 바다, 그리고 나의 불안한 배.”

고요한 중심과 흔들리는 그릇—이 두 이미지는 곡의 시적 축이 된다. 소프라노와 바리톤은 유사한 낭송 구조를 공유하지만, 소프라노가 맑고 고요한 조화의 극을 구현한다면, 바리톤은 ‘높은 배’의 흔들림을 비춘다. 그는 자주 고역 팔세토(가성)로 치솟아 취약의 경계를 스치고, 다시 본래 음역으로 되돌아오며, 긴장과 안착 사이를 끊임없이 진동한다. 피아노는 두 성부를 떠받치는 공명의 장이 되어, 질서와 불안이 서로를 침투하게 한다.

마예링의 ‘환상 화성법’은 오랜 세월에 걸쳐 발전했으며, 가장 멀리 확장된 예는 아벨 강스의 무성영화 <J’Accuse>를 위한 3시간 분량의 음악이다. <사냐의 낭송들>에서 그 방법은 응축된 음악적 신조가 된다. 말의 진실과 기만의 아름다움, 그리고 예술 속에 계속 살아 있는 한 우정에 바치는 헌사다.

1. SONETO DE SOBREMESA	1. 식후의 소네트
Sigo siendo el que fui, ni más ni menos. Los caminos que sigo son los mismos; es mi moral la del donquijotismo; mi nombre lo sabéis: me llamo Heleno. A mi pasión le he puesto algunos frenos para evitar que caiga en el abismo; lo que busco requiere inconformismo pero a la vez un corazón sereno. No soy hombre de secta o de partido y el bien que pueda hacer a mis hermanos lo haré como lo entienda, a mi manera. Asumo lo que soy y lo que he sido: un hombre más que quiere ser humano en la ciudad inmensa y extranjera..	나는 예전의 나다, 더도 덜도 아니다. 내가 걷는 길도 여전히 그 길들이다; 나의 윤리는 돈키호테의 정신, 내 이름을 너희는 안다: 내 이름은 헤레노. 나의 열정이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도록 나는 그 위에 몇 겹의 제동을 걸었다; 내가 찾는 바는 순응을 거부해야 하지만 동시에 고요한 마음을 요구한다. 나는 종파나 정당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내가 형제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선은 내가 이해한 대로, 나만의 방식으로 하겠다. 나는 지금의 나와 지나온 나를 받아들인다: 거대하고 낯선 도시에서 인간이 되고자 하는 또 한 사람으로.
2. DEJADME ASI	2. 이렇게 나를 두라
No es la paz y el sosiego lo que quiero no la calma, la bonanza segura; lo que pido es la lid y la aventura y el destino difícil del guerrero. No la mansa costumbre del cordero, su paciente silencio, su cordura, sino la ardiente llama de locura es lo que necesito y que requiero. Dejadme así, con esa insobornable rebeldía que habita en mi conciencia; dejadme como soy, atrincherado en mi protesta airada, insobornable, alta la voz y àvido de impaciencia para ocupar mi puesto de soldado.	나는 평화와 안식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고요도, 안전하게 보장된 평온도 아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싸움과 모험, 그리고 전사가 맞닥뜨리는 험한 운명이다. 나는 어린 양의 온순한 습성도, 그의 참을성 있는 침묵도, 그 분별도 원치 않는다; 내게 필요한 것은 타오르는 광기의 불꽃, 바로 그것, 내가 요구하는 전부다. 이렇게 나를 두라, 내 의식 속에 깃든 타협하지 않는 반역과 함께; 있는 그대로의 나를 두라, 참호를 쌓고 버티는 분노의 항변 속에서, 굽히지 않은 채, 목소리를 높이고, 조급함으로 달아오르며, 병사로서 내 자리에 서기 위해.
3. NUEVO DAVID	3. 새로운 다윗
Me han dicho muchas veces que desista. Me lo han dicho los listos, los arteros, los que no creen en nada, los rastreros con la fácil moral sanchopancista. Me aconsejan que ceda y que no embista, que tenga en cuenta los despeñaderos, que abandone difíciles senderos y que acepte la ruta conformista. Yo seguiré lo mismo que hasta ahora sin escuchar las voces plañideras que mi caída auguran al final. Armado de mi honda retadora, nuevo David sobre la tierra entera arrojaré mis piedras contra el mal.	많은 이들이 내게 포기하라 했다. 영리하다는 자들, 간사한 자들, 아무것도 믿지 않는 자들, 산초 판사식의 안이한 도덕을 붙든. 그들은 내게 물러서고 들이받지 말라 하고, 절벽들을 헤아리라 권하고, 험한 오솔길을 버리라 하고, 순응의 길을 받아들이라 한다. 나는 지금껏 그래 왔듯 그대로 가리라, 마침내 내 추락을 예언하는 울음 섞인 목소리는 듣지 않으리. 나의 맞서는 물매를 손에 들고, 온 땅 위에 서는 새로운 다윗으로서 악을 향해 내 돌들을 던지리라.

4. UNA GUERRA SOSTENGO	4. 나는 전쟁을 이어간다
Una guerra sostengo, un desafío, una lucha difícil y enconada, una pelea entre mi voz airada y un universo endurecido y frío. Yo combato por lo vuestro y lo mío, por la gente sin pan y sin morada. Es por ellos que mi voz desatada se articula, saliendo del vacío. Por los parias, por el niño oprimido, por los que nunca acuden a una fiesta, por los que están sufriendo injustamente, por los que se han callado mansamente: es por ellos que yo he comparecido levantando mi grito de protesta.	나는 전쟁을 이어간다, 하나의 도전, 완강하고 힘겨운 싸움, 분노한 내 목소리와 굳어 차가운 우주 사이의 격투를. 나는 그대들의 것과 나의 것을 위해 싸운다, 빵도 집도 없는 사람들을 위해. 그들을 위해 풀려난 내 목소리가 허무에서 나와 또렷이 형상을 갖춘다. 천대받는 이들, 억눌린 아이를 위해, 한 번도 잔치에 불린 적 없는 이들을 위해, 부당하게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온순히 침묵해 온 이들을 위해: 그들을 위해 내가 나섰다, 항의의 외침을 높이 들고.
5. CON POCO ME CONFORMO	5. 적음으로 나는 만족한다
Con poco me conformo, poco exijo el afecto callado de la esposa, la familiar estancia silenciosa, y la gloria colmada que es un hijo. Un camarada inquebrantable y fijo, un libro entre las manos, cualquier cosa con que ganar el pan y la forzosa dura necesidad de hallar cobijo. Pido un poco de paz y de armonía, la libertad de ir adónde quiera y de elegir mi propia compañía. Eso me basta. A nada más aspiro. El resto - poder, gloria, carrera - es algo que me sobra y que no miro.	나는 적음으로도 만족한다, 적게만을 요구한다. 아내의 말없는 애정, 익숙한 집의 고요, 그리고 충만한 영광, 곧 한 아이. 부서지지 않는 든든한 벼 하나, 손에 든 책 한 권, 무엇이든 빵을 벌게 해 주는 것, 그리고 불가피한 몸 붙일 곳을 찾아야 하는 고된 필요. 나는 조금의 평화와 조화를 청한다,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자유와 나만의 벼를 스스로 고를 자유를. 그것이면 충분하다. 더는 바라지 않는다. 나머지—권력, 영광, 출세—는 내겐 지나치고, 눈길조차 주지 않는다.
6. A GISELA	6. 지젤라에게
Si no fuera por ti, por tu asistencia, por tu paciente mano y tu cordura, por tu dulce bondad y tu ternura, por tu entrega total y tu indulgencia, ¿qué hubiera sido, Amor, de mi inclemencia, de mi alta mar y mi nave insegura, del vértigo que frequenta mi altura, y el peligro que habita en mi impaciencia? Estás hecha de paz y de armonia, eres sensible y fuerte y eres buena, eres mujer y humana compañía. Contigo, Amor, definitivamente mi corazón recobra, en tu serena luz, otra vez, su ritmo convergente.	그대가 아니었다면, 그대의 보살핌이 아니었다면, 참을성 있는 그 손과 분별이 아니었다면, 달콤한 선함과 다정함이 아니었다면, 전적인 헌신과 너그러움이 아니었다면, 사랑이여, 나의 가혹함은 어떻게 되었을까, 대양 위의 나의 불안한 배는, 내 높이에 들락거리는 현기증은, 나의 성급함 속에 깃든 위험은? 그대는 평화와 조화로 빚어진 이, 섬세하면서 강하고, 선한 이, 한 여인이자 인간다운 동반자. 그대와 함께라면, 사랑이여, 단연코 그대의 고요한 빛 속에서 내 마음은 다시, 수렴하는 박동을 되찾는다.

7. AQUELLA REBELDIA ¿Qué ha quedado de aquella rebeldía, de las horas inéditas y hermosas, de aquella prisa por cambiar las cosas y de aspirar sin miedo al mediodía? Mi protesta decrece cada día, mis palabras son menos orgullosas; noto en mi corazón las dolorosas embestidas del mal y la agonía. ¿Sucumbiré tal vez al desaliento? Empiezo a estar cansado de la ira y de mi brusco batallar violento. Lo confieso: mientras alzo la mano mi corazón inconformista aspira a un definitivo abrazo humano.	7. 그때의 반항 그때의 반항에서 무엇이 남았는가, 새롭고도 아름답던 시간들에서, 사물을 바꾸려던 그 성급함에서, 정오를 두려움 없이 향하던 그 열망에서? 나의 항변은 날마다 줄어들고, 나의 말은 예전만큼 당당하지 않다; 내 마음에는 아프도록 느껴진다, 악과 고통이 들이받는 몰아침이. 나는 결국 낙담에 굴복하고 말까? 분노에 지쳐 가기 시작했고, 거칠고 폭력적인 나의 싸움에도 지쳐 간다. 고백한다: 손을 치켜들고 있으면서도 내 불복의 심장은 갈망한다— 마침내의 인간적 포용을.
8. DÉBIL FORTALEZA Horas de soledad y de amargura, angustiosos momentos de tristeza, ¡con qué celo llegáis, con qué certeza al umbral de mi humana arquitectura! Que cotidiana ya, vuestra envoltura asediando mi débil fortaleza y qué total cansancio, qué pereza para apartar vuestra presencia oscura. Antigua es nuestra lidia, la insistencia con que acosáis mi puesto, y mi fatiga por ofrecer humana resistencia. Mi defensa es inútil por ahora: No cejaréis, por mucho que yo diga de consumir la empresa destructora.	8. 연약한 성채 고독과 쓰라림의 시간들, 비통이 조여 오는 순간들, 너희는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확신에 차서 내 인간이라는 건축의 문턱까지 찾아오는가. 이제 너희의 포위망은 너무도 일상이 되어 내 연약한 성채를 에워싸고, 얼마나 완전한 피로, 얼마나 무기력인가, 너희의 어두운 존재를 밀어내기에는. 우리의 싸움은 오래되었고, 너희가 내 초소를 집요하게 몰아붙이는 그 끈질김도, 인간다운 저항을 내세우며 버틸 때의 나의 피로도. 지금으로서는 나의 방어는 소용없다: 내가 아무리 말해도, 너희는 물려서지 않겠지— 그 파괴의 일을 끝까지 이루려는 너희여.
9. TIEMPOS DE AYER Tiempos de ayer, humanos y esenciales que el exilio frecuentan, y evocamos, que sin querer regresan y encontramos de nuevo aquí, intactos y totales. Los amigos, las voces tan cordiales de los seres que nos aman y amamos y la exacta certeza de que estamos entre gentes conocidas e iguales. Los recuerdos de calles recorridas, de sitios frecuentados, de las horas y de las muchas cosas compartidas. Cosas en la memoria estacionadas que enraizadas a fondo, porfiadoras, se resisten a quedar olvidadas.	9. 지난날 지난날, 인간적이고 본질적인 그 시절— 망명의 자리를 드나들고, 우리가 불러내며, 뜻하지 않게 돌아와 다시 여기서 손상 없이, 온전히 우리를 찾아온다. 친구들,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다정한 목소리, 그리고 우리가 익숙하고 서로 같은 이들 가운데 서 있다는 분명한 확신. 되짚어 걸었던 거리들의 기억, 자주 드나들던 장소들, 시간들, 함께 나누었던 많은 것들의 기억. 기억 속에 멈춰 선 것들— 깊숙이 뿌리내려, 완강하게, 잊히기를 끝내 거부한다.

10. CIUDAD DE ENTONCES	10.그때의 도시
Inaugurales días expectantes, horas de ayer, de propósitos puros, de gestos impacientes, prematuros, hoy ya lejos de mí y equidistantes. Y la ciudad de entonces, con sus muros abiertos hacia el mar, las incesantes callejuelas, los paseos errantes y los primeros sueños inseguros. ¿Qué ha quedado de aquéllo, de la historia de entonces, cuando toda la vida era una fácil, total convocatoria? Queda el sabor amargo del recuerdo, la intuición y lucidez postrera de saber que envejezco y que pierdo.	시작을 여는, 기대로 가득한 날들, 어제의 시간들, 순결한 의지의 시간들, 조급하고 아직 이른 몸짓들의, 오늘의 나로부터 이미 멀어져 한결같이 떨어져 있는. 그리고 그때의 도시는, 성벽이 바다를 향해 열려 있었고, 끝없이 이어지는 골목들, 헤매던 산책들, 그리고 불확실하던 첫 꿈들. 그 모든 것, 그때의 이야기에서 무엇이 남았는가— 삶 전체가 손쉬운, 전면적 부름이던 그 시절의? 남은 것은 기억의 씹싸래한 맛, 내가 늙어가고 잃어 간다는 사실을 아는 마지막의 직관과 맑음이다.
11. EN LA TARDE OTOÑAL	11. 가을의 오후에
En la tarde otoñal y cotidiana mi corazón del sur, no acostumbrado a ese cielo de plomo - tan cerrado - va contando las horas con desgana. Aburrido, detrás de la ventana, en la paz de mi cuarto refugiado llego a palpar el tedio acumulado en esta tarde oscura y alemana. Fuera queda la calle con su gente atareada y triste, laborable, con su gesto banal e intrascendente. En la ciudad extraña y forastera una inmensa tristeza inevitable se establece sobre la tarde entera.	가을의, 늘 그러하던 오후에 남쪽의 내 마음은 익숙지 않다, 그 낯빛—너무도 달한—하늘에; 마지못해 시간을 헤아리고만 있다. 권태에 젖어, 창문 뒤에서, 방의 고요 속에 몸을 숨긴 채 쌓여 온 권태를 손끝으로 더듬게 된다, 독일의 이 어두운 오후에. 밖에는 사람들이 오가는 거리, 분주하고 슬픈, 평일의 풍경, 시시하고 의미 없는 표정들. 낮설고 타향인 이 도시에서 피할 수 없는 거대한 슬픔이 온 오후를 덮고 자리를 잡는다.
12. VUESTRA ES MI VOZ	12. 그대들의 것이 내 목소리다
Yo digo que no es justo y lo sostengo: que haya una España harta y otra hambrienta, una España sin pan y otra opulenta. Yo digo que no es justo y lo mantengo. Yo digo que no es justo y aquí vengo a alzar mi voz por la España irredenta. Aquí está mi protesta, aquí la cuenta, aquí la deposito, aquí la tengo. Yo digo que no es justo todo eso: el hambre no saciada, el pan exiguo, la honda penuria aquí, y allí el exceso. Yo digo que no es justo y lo proclamo: estoy de vuestra parte y lo atestiguo: vuestra es mi voz y el nombre que me llamo.	나는 이것이 옳지 않다고 말하며, 그 말을 굳게 견지한다: 배부른 스페인이 하나 있고, 또 다른 한편에 굶주린 스페인이 있는 것, 빵이 없는 스페인과 또 다른 한편에 부유한 스페인이 있는 현실, 나는 이것이 옳지 않다고 말하고, 그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 나는 이것이 옳지 않다고 말하며 여기 왔다, 속박에서 풀리지 못한 스페인을 위해 내 목소리를 높이려. 여기 나의 항의가 있다, 여기 그 내역이 있다, 여기 나는 그것을 말기고, 여기 내가 그것을 지닌다. 나는 이 모든 것이 옳지 않다고 말한다: 채워지지 않는 굶주림, 너무나 빈약한 빵, 이쪽의 깊은 궁핍, 저쪽의 과잉. 나는 옳지 않다고 말하며, 그것을 공언한다: 나는 그대들의 편에 서 있음을 증언한다: 그대들의 것이다, 나의 목소리와 내가 불리는 이름은.

헤레노 사냐

철학자이자 시인(1930년, 바르셀로나 출생). 1959년부터 독일 거주. 윤리·사회·문화 전반에 걸친 스페인어·독일어 저작을 다수 발표했다.

자세한 정보: de.wikipedia.org/wiki/Heleno_Saña

코르드 마예링

다름슈타트의 작곡가. 오페라·실내악·영화음악 등에서 활동하며, 특히 문화 간 연결에 초점을 두고 작품을 만들어 왔다.

자세한 정보: www.meijering.de

서예리 – 소프라노

한국 출신 소프라노로, 다양한 스타일과 탁월한 표현력으로 국제적으로 각광받고 있다. 레퍼토리는 바로크부터 현대음악까지 폭넓다. 현재 슈투트가르트 음악·공연예술대학교에서 현대음악(Neue Musik) 성악 교수로 재직 중이다.

자세한 정보: <https://www.hmdk-stuttgart.de/person/profin-yeree-suh>

데이비트 피힐마이어 – 바리톤

독일 바리톤(1979년, 뮌헨 출생). 명료한 선율 전개와 집중된 표현으로 주목받으며, 오페라·콘서트·현대 음악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활동한다.

자세한 정보: www.david-pichlmaier.de

홀거 그로쇼프 – 피아노

피아니스트이자 가곡 반주자, 앙상블 연주자로 국제적 명성을 지녔다. 베를린 필하모닉과의 오랜 협업으로도 잘 알려져 있으며, 고전부터 현대에 이르는 폭넓은 스타일을 아우른다.

자세한 정보: www.schott-music.com/de/person/holger-groschopp

울리케 로트 – 화가

뒤셀도르프의 화가·무대미술가로, 회화·무대예술·발성 연구(리히텐베르크 방법)를 융합하는 작업을 이어왔다. 여러 지원 프로그램에 노미네이트되었고, 최근 단편소설을 발표했다.

자세한 정보: https://www.artworks.art/artists_de/ulrike_roth.html

다음에 예정된 프로그램

2025년 11월 21일 // 19:00 *Ensemble Phorminx*

2025년 12월 4-5일 *AsianArt Ensemble in Residence (AfT & Kunsthalle Darmstadt)*

2026년 1월 15일 // 18:00 *Vocal-Recital und Workshop mit Lisa Fornhammar*

자세한 정보: <https://akademie-fuer-tonkunst.de/neue-tonkunst-darmstadt/>

다름슈타트 음악원 후원자·친구 협회 (Verein der Förderer und Freunde der Akademie für Tonkunst Darmstadt e.V.)는 공연 종료 후 출구에서 여러분의 기부를 부탁드립니다.

공연 중에는 사진·영상 촬영 및 녹음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휴대전화의 전원을 꺼 주시기 바랍니다.

콘서트 시리즈 neue.tonkunst.darmstadt와 오늘 공연을 후원해 주신 다음 기관·분들께 감사드립니다:

Verein der Förderer und Freunde der Akademie für Tonkunst e.V. // Stadt- und Kreissparkasse Darmstadt // Darmstädter Förderkreis Kultur e.V. // Bürgerstiftung Darmstadt // Kurt und Lilo Werner RC Darmstadt Stiftung // Baldur & Rose-Marie Schreiner Stiftung



BÜRGERSTIFTUNG
DARMSTADT



Baldur & Rose-Marie
Schreiner Stiftung



Darmstädter Förderkreis Kultur e.V.

Wissenschaftsstadt Darmstadt | Akademie für Tonkunst

Ludwigshöhstraße 120 | 64285 Darmstadt

Telefon (0 61 51) 9 66 40

| **E-Mail** veranstaltungen-akademie@darmstadt.de | **Web** www.akademie-fuer-tonkunst.de